SNS를 통한 지방정치 참여 요인

-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teceden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NS)

-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Orientation -

윤 병 섭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Byung-Sup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NS). This study adopted survey method with the local citizens who have used the SNS.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The result shows that political efficacy also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Using multi-group analysis, this study tests hypotheses about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The result shows that political orientation has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ocal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are also discussed.

주 제 어: 정치참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기, 정치효능감

Key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Network Service(SNS), Motivation, Political Efficacy

I.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웹2.0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최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웹2.0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다. 웹2.0(Web 2.0)은 사회·정

치적 토의의 활성화, 의견의 다양성은 물론 정보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증대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OECD(2007)에 따르면 웹2.0과 관련된 기술적 도구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관한 정보공유와 의견교환, 그리고 토론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웹2.0을 대표하는 기술 서비스중 하나는 바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이다.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는 SNS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SNS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인 이동성과 개인성, 휴대성을 결합시킨 서비스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SNS는 개인 프로파일 및 콘텐츠의 생성, 다른 사용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용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웹 서비스이다(Boyd & Ellison, 2007). 사회구성원들은 SNS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SNS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는 실시간 연결성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서 SNS 이용자 간의 직접적인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등 모든 관계 수준에서 가능하다. 정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SNS가 단순히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의 양방향 소통과 참여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SNS 효과 또는 유용성에 관한 논의는 다수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관점에서의 SNS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참여의 문제는 정치적 대표성, 정통성, 반응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연구주제이다(조진만, 2011: 274). 특히 SNS의 보급과 확산이 정치참여 양상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SNS를 통한 주민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적 논의는 상당히 의미있는 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SNS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 현상을 설명·예측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다. 특히 SNS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치참여의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개인적 동기 및 정치적 요인에 주목한다.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기와 정치적 요인에 따라 SNS를 통한 정치참여 양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개인의 동기와 정치적 효능감이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성향은 어떠한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2장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선행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선행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은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후,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SNS를 통한 정치참여

정치참여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과 초점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정치참여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Verba & Nie(1972)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민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모든 행태'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 정치참여에 관한 개념적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투표행위나 정치토론 등과 같은 관점에서의 정치참여 유형은 물론 온라인 영역에서의 정치적 활동 역시 정치참여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민영·주익현: 2007; 송경재,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조성동·나은경(2011: 252)은 민주주의의 공적 담론의 장(public sphere) 형성은 비정치적 결사체 모임에서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때 더욱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광의적인 정치참여 개념을 토대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정치대화'가 매우 중요한 참여 행태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보기술 및 소셜 미디어 등의 발달은 투표행위와 같은 전통적인 정치참여 행태를 온라인상의 정치참여 장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참여 장의 확장이라는 의미 외에도 미디어의 활용은 실제 정치참여 의도 및 행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SNS와 정치참여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자신에게 적합한 미디어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정보에 노출됨으로써 인지적 차원에서 정치지식이 증가한다(김관규, 2008; 김진영, 2006). 정치지식의 증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고 이는 정치참여 의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Jenkins와 동료들(2009)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가 출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SNS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기술은 참여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참여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한편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과 위험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영역도 결국 오프라인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견해(조화순, 2010),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숙의, 사고, 회의, 대화, 소통 등이 온라인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Chadwick, 2006), 과도한 정보홍수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견해(조진만, 2011), 정보화가 일종의 정치적 정보와 의사교환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기제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지는 못한다는 견해(Rethemeyer,

2006) 등이 그것이다. Prior(2007)는 SNS를 비롯한 최근의 디지털 융합 콘텐츠 전송기술에 대한 선택의 자율성이 수용자의 분극화된 매체이용으로 이어져 정치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SNS 이용을 통한 정치참여의 효과에 관한 논의 외에도 SNS가 정치참여에 어떠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SNS를 비롯한 정보기술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정치정보 획득과 정치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Aldrich, 1993),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시민들은 자신이 적은 비용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조진만, 2011: 276-277).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의 출현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황유선(2011)은 트위터의 이용과 시민들의 사회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트위터 이용 동기 중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동기는 시민참여와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신속한 정보수집 동기는 시민참여와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희조(2010)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이용과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셜미디어 이용과 시민참여 간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정희정·김소연(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의식과 SNS 이용이 사회 및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NS 이용 중 네트워크는 사회 및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속적 네트워크, 연결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사회 및 정치참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SNS 이용동기는 사회 및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소연·이상우(2012)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이 인터넷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트위터의 이용은 인터넷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페이스북 이용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NS 정치이용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두 인터넷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를 포함한 정보기술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입장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상반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SNS가 기존 정치체제의 참여기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치참여 영역의 확대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를 통한 정치참여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SNS를 통한 정치참여 기제를 설명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2. 개인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정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행위이다. 동기는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특정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Deci 1975;

Amabile et al., 1994; Ryan & Deci, 2000; Hirschfeld, 2008). 동기란 특정 행동을 발생시키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Maslow, 1976).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내재적,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Deci, 1975).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한 개인이 위협, 억압 또는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느낌을 가질 때 수행행위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성취감을 주는 것이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뚜렷한 보상은 없지만 행위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흥미와 즐거움, 호기심, 주변 환경에 대한 자발적 관심 등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경우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되어 있다고 한다.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높은 지위, 돈, 명예, 긍정적인 반응과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또는 처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위를 유발하게 한다. 이에 따라 외재적 동기는 특정 행동을 수행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rewards)이나 혜택(benefits)과 같은 목적 지향적인 이유(goal-driven reasons)에 초점을 두고 있다(Lin, 2007). 이처럼 내재적 동기는 행위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흥미와 즐거움 등을 의미하며, 외재적 동기는 보상을 얻기 위해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SNS를 포함한 미디어 이용동기가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황유선(2011)은 트위터의 이용동기와 효과를 규명한 연구에서 사회적 형성, 오락, 신속한 정보수집 등의 동기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이정기·금현수(2012)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치 팟캐스트 이용자의 이용동기가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동기는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온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는 시간보내기 및 휴식 동기 등으로 나타난 반면,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는 휴식과 시간보내기 외에도 정보추구 동기가 추가됨을 발견하였다.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형태의 정치참여는 기본적으로 자기선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의 동기에 따라 정치참여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ilbrath & Goel(1977)에 따르면 정치참여는 개인이 인식하는 자극으로서의 환경, 태도, 신념, 성격 등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참여와 관련된 개인의 동기는 시민들이 왜(why) 정치에 참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혜정(2010)은 시민참여에 대한 기존 이론들이 참여동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 동기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김혜정(2010)의 연구는 주로 투표나 시민단체 활동, 선거운동이나 지역공동체 참여, 공직자 접촉, 항쟁 등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동기를 규명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SNS 이용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즐거움이나 흥미, 기쁨 등과 같은 개인의 동기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다. 정치영역에서도 정치에 관한 흥미, 즐거움 등은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이 SNS를 통한 정치참여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SNS를 통한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인지할 경우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내재적 동기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외재적 동기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

개인동기 외에도 정치심리적 요인 역시 정치참여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정치효능감은 대표적인 정치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Cohen et al., 2001; Morrell, 2003; Pollock, 1983, Kenny, 1993; Zhang et al., 2011; 안명규·류정호, 2007).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정치적 제도 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하는 사람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개인 믿음을 의미한다(Campbel, et al., 1954).

정치효능감은 내재적, 외재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얼마나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것이다.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개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정도에 관한 신념이다(Balch, 1974; Craig, et al., 1990).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행동을 취했을 때, 정치 시스템이 이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에 관한 인식이다. 전자가 개인의 능력 및 자원에 기반한 효능감이라면 후자는 제도기반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의 차이는 자기 인식(내적)과 자기 환경에 대한 인식(외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Hoffman & Thomson, 2009).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주요 선행요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Zhang과 그의 동료들(2011)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하는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실증하였으며, Hoffman & Young(2011) 또한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조성동·나은경(2011)은 정치효능감이 정치대화 및 정치참여 의사와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강형(2013)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의견제시 및 토론, 정보검색) 등과 같은 정치참여 활동이 정치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정한울·이곤수(2013) 또한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정치효능감은 선거참여와 비선거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참여와 정치효능감 간의 관계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들의 경우 외재적 정치효능감이 정부의 반응성이 높을 경우 정치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박종민, 1994). 대표적으로 Craig et al.(1990)은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정치효능감을 대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효능감의 효과는 SNS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참여 현상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Eveland & Scheufele(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디어의 이용과 정치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안명규·류정호(2007)는 정치효능감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정치참여와 행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조성동 외(2010)은 인터넷 이용이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노일·한정호(2008)는 정치효능감이 블로그의 글쓰기 행위와 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매개함을 실증하였다. 이수범·김동우(2012)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이용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소셜미디어의 이용 동기는 소셜미디어 정치적 이용동기와 선거 효능감이 정치참여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혜(2013)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정치심리 요인중의 하나로 정치참여의 주요 선행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이용과정에서도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효능감이 높은 지역주민일수록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더욱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3〉 정치효능감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정치성향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동기와 정치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치이념 또는 정치성향은 대표적인 정치태도 요인으로 간주된다. 정치성향은 신념체계 또는 다수가 공유하는 포괄적이고 내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가치정향으로 보수, 진보, 중도의 정치 성향으로 분류된다(이숙종·유희정, 2010). 정치성향은 연구에 따라 정치참여를 설명하기 위한 통제요인으로 논의되는 경우도 있으며(나은경 외, 2009; 이준웅·김은미, 2006; 조진만, 2011), 정치참여의 선행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심홍진, 2012; 이숙종·유희정, 2010; 장덕진, 2008). 이숙종·유희정(2010)은 정치참여에 관한 선행요인으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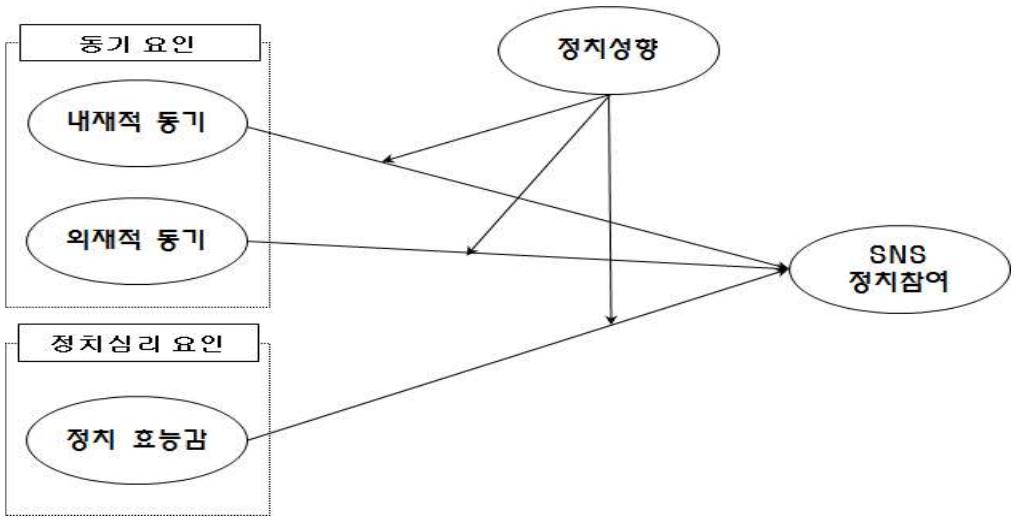
인의 인성 및 태도변인으로 정치성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참여 행태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장덕진(2008)은 진보적인 집단일수록 환경의식이 강하고 공익, 인권, 관용에 대한 의식이 강하며, 탈물질적이고 집합적 의사표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홍진(2012)은 정치참여의 선행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치참여에 다소 적극적임을 보고하였다. 최연태(2011)는 정치성향이 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들의 지지정당 유무와 지지정당의 종류로 측정한 개인들의 정치성향이 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보다 지지정당이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를 이용이 많으며, 특히 진보성향 정당 지지자들이 유의미하게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정치성향에 따라 SNS를 통한 정치참여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그 선행요인에 있어서도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4-1〉 정치성향은 내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2〉 정치성향은 외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3〉 정치성향은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참여를 설명·예측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지금까지 정치참여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동기, 정치심리, 정치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전통적 정치참여와는 달리 SNS 이용과 정치참여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SNS를 통한 정치참여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SNS 이용과 정치참여 선행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SNS 이용과 정치참여, 정치참여 선행요인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인 개인의 동기요인과 정치요인, 종속변수인 SNS를 통한 정치참여, 그리고 조절변수인 정치성향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요인들은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내용을 토대로 구조적 영향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개인의 동기요인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선행요인으로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개인의 동기요인과 더불어 SNS를 통한 정치참여 선행요인으로 정치심리 요인인 정치 효능감을 설정한다. 개인의 동기요인과 정치 효능감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의 동기요인과 종속변수인 SNS를 통한 정치참여 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정치성향을 설정한다. 조절변수인 정치성향은 진보, 보수, 중도 성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치성향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의 관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지역주민들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선행요인 간의 관계 및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경기도 지역주민 SNS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총 37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총 375부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회수된 자료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분석,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M) 및 다중집단분석에 의한 조절효과 분석(moderating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일부 문항의 경우 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요인별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 내용과 및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재적 동기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 행위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정의하고, Deci & Ryan(1985)과 이청림(2013)의 문항을 토대로 SNS를 통해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해 ①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 ② 호기심을 느끼는 정도, ③ 재미를 느끼는 정도, ④ 행복을 느끼는 정도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재적 동기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rewards)이나 혜택(benefits)에 대한 기대 인식의 정도로 정의하고, Deci & Ryan(1985)과 이청림(2013)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반으로 SNS에서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해 활발하게 활동할 경우, ① 타인으로부터 존경, ② 명성, ③ 긍정적인 이미지, ④ 신뢰, ⑤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치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신념의 정도로 정의한다. 이는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정치효능감을 대표한다고 주장한 Craig et al.(1990)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SNS를 통한 정치참여 과정에서는 외재적 정치효능감보다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더욱 타당한 설명요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효능감은 Craing et al.(1990)와 최정화(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① 자신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② 지방의원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잘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③ 지역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④ 지역정치와 정책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SNS를 통해 지방정치 및 정책에 관한 정보획득 및 공유, 관련 정치토론에의 참여 정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김성태 외(2011)와 신소연·이상우(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조하여 ① SNS에서 지방정치 또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자주 찾아보는지, ② SNS에 지역 정치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이나 글을 자주 게재하는지, ③ SNS에서 정치 또는 사회문제에 관한 토론에 자주 참여하는지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조절변수인 정치성향은 진보성향, 보수성향, 중도성향 등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특성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51.2%(190명)로 여성 48.8%(182명)보다 많았고, 연령별 분포의 경우 40대가 34.7%(13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1.5%(118명), 30대가 23.6%(88명), 50대가 9.6%(36명), 60대 이상이 0.3%(1명)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이 28.4%(106명)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26.2%(98명), 학생이 19.5%(73명), 기타가 15.5%(58명), 교직 및 공무원이 7.2%(27명), 자영업이 2.5%(11명)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재학생 포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53.1%(199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22.4%(84명), 전문대 졸업이 15.2%(57명), 대학원 이상이 7.7%(29명), 중학교 졸업 이하가 1.1%(4명)였다. 응답자의 가구별 월평균 소득 분포에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4.0%(90명)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이 20.5%(77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9.7%(74명),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9.5%(73명), 100만원 미만이 12.5%(47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중도성향이 55.2%(207명)로 가장 많고, 진보성향이 24.6%(92명), 보수성향이 19.2%(72명)로 분포되었다.

〈표 1〉 표본특성

구분	내용	빈도(%)	구분	내용	빈도(%)
성별	남자 여자	190(51.2%) 182(48.8%)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4(1.1%) 199(53.1%) 57(15.2%) 84(22.4%) 29(7.7%)
	합계	372(100%)		합계	373(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18(31.5%) 88(23.6%) 130(34.7%) 36(9.6%) 1(0.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47(12.5%) 74(19.7%) 90(24.0%) 73(19.5%) 77(20.5%)
	합계	373(100%)		합계	361(100%)
직업	학생 회사원 교직/공무원 자영업 주부 기타	73(19.5%) 106(28.4%) 27(7.2%) 11(2.5%) 98(26.2%) 58(15.5%)	정치 성향	매우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보수	7(1.9%) 85(22.7%) 207(55.2%) 60(16.0%) 12(3.2%)
	합계	373(100%)		합계	371(100%)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정치참여 등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활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들은 4개로 도출되었다(〈표 2〉 참조).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모두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성개념별 측정변수의 집중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량과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검토하였다. 요인적재량의 경우 ±0.4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Barclay et al. 1995), 각 구성개념별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AVE는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Hair et al., 1995), 구성개념별 개념신뢰도는 0.8이상, AVE는 0.5이상으로 분석되었다(〈표 3〉참조).

〈표 2〉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Cronbach's α
내재적 동기1	0.310	0.803	0.144	0.170	0.923
내재적 동기2	0.262	0.827	0.201	0.172	
내재적 동기3	0.330	0.848	0.131	0.209	
내재적 동기4	0.369	0.733	0.146	0.227	
외재적 동기1	0.818	0.261	0.167	0.181	0.948
외재적 동기2	0.859	0.246	0.146	0.186	
외재적 동기3	0.840	0.265	0.116	0.151	
외재적 동기4	0.859	0.260	0.151	0.120	
외재적 동기5	0.847	0.273	0.163	0.146	
정치효능감1	0.092	0.142	0.765	0.126	0.836
정치효능감2	0.189	0.167	0.767	0.080	
정치효능감3	0.137	0.090	0.835	0.153	
정치효능감4	0.113	0.088	0.799	0.162	
정치참여1	0.145	0.433	0.121	0.648	0.818
정치참여2	0.241	0.161	0.187	0.837	
정치참여3	0.184	0.174	0.244	0.840	
아이엔값	4.167	3.234	2.832	2.178	
분산비율(%)	26.041	20.212	17.702	13.614	
누적분산비율(%)	26.041	46.253	63.956	77.570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은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AVE의 제곱근 값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김주경·조광래·이홍재, 2015: 251).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한다. 이에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찰변수	요인 적재량	표준화 요인 적재량	표준 오차	t 값	개념 신뢰도	AVE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1	1.000	0.843	0.050	20.093	0.938	0.790
	내재적 동기2	1.150	0.855	0.056	20.555		
	내재적 동기3	1.243	0.943	0.052	23.946		
	내재적 동기4	1.000	0.831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1	0.939	0.826	0.042	22.291	0.954	0.807
	외재적 동기2	0.983	0.871	0.039	25.092		
	외재적 동기3	1.006	0.880	0.039	25.710		
	외재적 동기4	1.028	0.908	0.037	27.745		
	외재적 동기5	1.000	0.906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1	0.787	0.573	0.070	16.667	0.829	0.557
	정치효능감2	0.901	0.614	0.074	12.149		
	정치효능감3	1.100	0.903	0.066	11.199		
	정치효능감4	1.000	0.827				
정치참여	정치참여1	0.858	0.661	0.065	13.260	0.895	0.743
	정치참여2	1.053	0.840	0.062	16.989		
	정치참여3	1.000	0.859				

χ^2=210.534, χ^2/DF=2.193, GFI=.935, RMR=.050, AGFI=.908, IFI=.975, TLI=.969, CFI=.975

〈표 4〉 상관관계 분석 및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구성개념	평균	표준편차	①	②	③	④
① 내재적 동기	2.562	0.830	*0.889*			
② 외재적 동기	2.480	0.823	0.640**	*0.898*		
③ 정치효능감	2.397	0.786	0.387**	0.372**	*0.746*	
④ SNS를 통한 정치참여	2.089	0.799	0.572**	0.484**	0.426**	*0.862*

*p〈0.05, **p〈0.01
주)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

3. 가설검증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을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χ^2은 210.534(자유도=96, p〈0.01)이고, χ^2를 자유도로 나눈 값인 Q는 2.193, GFI 0.935, AGFI는 0.908, RMR은 0.050, RMSEA는 0.056로 나타났으며, NFI는 0.956, TLI는 0.969, CFI는 0.975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형적합도 지수 모두가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와 모형 간의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구성요인 간의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가설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정치효능감 모두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경로계수는 0.399(t=5.600)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외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경로계수는 0.145(t=2.315)이고, 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도 채택되었다. 셋째,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경로계수는 0.275(t=4.894)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3〉 역시 채택되었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내용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S.E.	t	Sig.	검증 결과
가설1	내재적 동기 → SNS를 통한 정치참여	.399**	.386	.071	5.600	.000	채택
가설2	외재적 동기 → SNS를 통한 정치참여	.145*	.155	.063	2.315	.012	채택
가설3	정치효능감 → SNS를 통한 정치참여	.275**	.267	.056	4.894	.000	채택

*p〈0.05, **p〈0.01

개인의 동기 및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정치성향(진보성향: N=92, 중도성향: N=211, 보수성향: N=72)로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χ^2 차이검증에 의한 조절효과는 3단계로 분석된다(배병렬, 2011: 401-402). 첫째, 정치성향이 동기요인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다. 둘째, 정치성향이 동기요인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가 정치성향에 대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모델(equality

constrained model)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이 모델은 독립변수와 정치성향 간에 상호작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1단계 분석의 χ^2값과 2단계 분석의 χ^2값의 차이를 구해 χ^2값의 차이를 토대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다. χ^2차이가 유의할 경우 정치성향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성향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배병렬, 2011: 401-402).

첫째, 개인의 동기 요인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2차이검증 결과 $\chi^2(1)=3.917$로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성향이 내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1〉은 기각되었다. 외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2차이검증 결과도 $\chi^2(1)=0.601$이고, 이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성향이 외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2〉도 기각되었다. 이는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chi^2(290)=551.357$이며, χ^2차이는 $\chi^2(2)=10.75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치성향은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3〉은 채택되었다(〈표 6〉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성향이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도(0.302)나 보수(0.038)보다는 진보성향(0.512)을 가진 시민일수록 정치효능감이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정치성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등가제약모형 χ^2	$\Delta\chi^2$	개별 표본분석 비표준화계수			개별 표본분석 표준화계수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내재적 동기	544.523	3.917	0.368*	0.296**	0.604**	0.352	0.264	0.705
외재적 동기	541.207	0.601	0.023	0.144	0.119	0.026	0.138	0.156
정치효능감	551.357	10.751**	0.559**	0.312**	0.034	0.512	0.302	0.038

비제약모형의 $\chi^2=540.606$(d.f.=288)
*$p<0.05$, **$p<0.01$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그 선행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그 선행요인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그리고 정치효능감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동기 요인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재적 동기가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는 뚜렷한 보상은 없지만 행위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흥미와 즐거움, 호기심, 주변 환경에 대한 자발적 관심 등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경우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된다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SNS를 통해 지역의 정치 및 현안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토론하는 행위 그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즐겁고 흥미롭다고 느끼는 지역 주민일수록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재적 동기 역시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재적 동기가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채택되었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 및 이미지 등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 SNS를 통한 정치참여 행위가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정치심리 요인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정치효능감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효능감이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 이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간의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이강형(2013), 정한울·이곤수(201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지역의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능력과 자원에 대한 신념이 높은 지역 주민일수록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그 선행요인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성향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개인의 동기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성향은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1〉, 〈가설4-2〉는 기각되었다. 하지만 정치심리 요인인 정치효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 성향은 정치효

능감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3〉은 채택되었다. 이는 장덕진(2008)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지역의 정치적 제도 또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하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높고, 진보성향을 가진 지역 주민일수록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절반 이상이 20-30대 젊은 계층으로 구성된 표본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의 경우 SNS를 주로 사용하는 세대라는 점이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의 경우 보수보다는 진보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SNS와 같은 신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수용도 역시 빠르다. 또한 젊의 세대들의 경우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참여보다는 SNS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한 정치참여에 더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기 연구결과는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치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논의에서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정치참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SNS를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설검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참여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상대적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SNS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인정과 명성, 이미지와 평판보다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 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등의 등 내재적 동기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SNS를 통한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참여 과정과 활동에 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SN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방정치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내 사회 및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무겁고 어려운 정치논리의 강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는 실제 지역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끔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정치효능감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역주민이 지방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주민의 능력과 자원을 향상시켜 주는 것 또한 지방정치체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정치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및 정치 문제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정치에 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정치효능감을 향상시켜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그 선행요인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연구대상이 주로 20~40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선행요인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는 물론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결과요인에 관한 논의의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24(5): 9-46.

김관규. (2008). 대학생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투표 행동.「언론과학연구」, 8(4): 43-62.

김성태·김여진·김진희. (2011). 웹기술 발전단계별 이용자의 정치참여 행태 연구.「언론과학연구」, 11(4):103-137.

김주경·조광래·이홍재. (2015).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한국지방행정학보」, 12(2):241-258.

김진영. (2006).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관한 미디어의 차별적 효과와 미디어 이용, 대인커뮤니케이션, 투표참여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언론정보학보」, 32:113-146.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83-104.

나은경·이강형·김현석. (2009). 댓글 읽기/쓰기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과 사회신뢰, 정치신뢰, 언론신뢰 그리고 정치지식.「한국언론학보」, 52(4):299-323.

민영·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한국언론학보」, 51(6):190-217.

박노일·한정호. (2008). 블로그 쓰기와 사회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52(2): 282-302.

박종민. (1994). 포털뉴스 이용동기가 인터넷 자기효능감, 정치적 신뢰, 정치냉소주의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5):153-175.

송경재. (2005).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6(1):99-132.

신소연·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191-232.

심홍진. (2012).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과 동류집단압력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8(3):6-52.

안명규·류정호. (2007). 인터넷 정치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 이용자의 정치심리변수와 인터넷 사회자본(e-social capital)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3:113-146.

이강형. (2013).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서 정치 효능감과 정서적 반응의 역할: 분노와 두려움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39:137-167.

이병혜. (2013).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결정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1(2):55-72.

이수범·김동우. (2012).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이용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보학연구」, 16(1):78-111.

이숙종·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287-313.

이정기·금현수. (2012). 정치 팟캐스트 이용이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5):163-189.

이청림. (2013). 자기제시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2(1):183-211.

장덕진. (2008).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

정한울·이곤수. (2013).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19(1):211-244.

정희정·김소연. (2012). 대학생의 복지의식과 SNS 이용이 사회 및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1):153-172.

조성동·김규찬·강남준. (2010). 다매체 수용자의 장르선호와 장르이용에 따른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362-386.

조성동·나은경. (2011). 매체의 이용 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1):242-286.

조진만. (2011).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5(5):273-296.

조화순. (2010). 『디지털 거버넌스: 국가·시장·사회의 미래』, 서울: 책세상.

최연태. (2011). 정치성향이 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택적 노출 이론을 중

심으로.「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3-87.

최정화. (2012). SNS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7:369-408.

황유선. (2011). 트위터 이용이 사회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통 미디어 이용, 정치 관심, 트위터 이용 패턴의 효과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55(6):56-81.

Aldrich, John H.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1):246-278.

Amabile, Teresa M., Karl G. Hill, Beth A. Hennessey, & Elizabeth M. Tighe. (1994).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950-967.

Balch, G. I. (1974). Multiple Indicators in Survey Research: The Concept Sens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1(2):1-43.

Boyd, D. M., & N. B. Ellison.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210-230.

Campbell, A., Guirin, G., & W.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IL: Row, Peterson.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hen, A., Vigoda, E., & A. Samorly. (2001).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Psychological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Structural Equations Framework. *Political Psychology,* 22(4):727-757.

Craig, S. C., Neimi, R. G., & G. E. Silver.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289-314.

Deci, E. L. & R. M. Ryan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Eveland, W. P. & D. A. Scheufele. (2000). Connecting News Media Use with Gaps in Knowledge and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3):215-237.

Fornell, C., & D. F. Larcker.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388.

Hirschfeld, Robert R. (2008). Implications of Self-Deception for Self-Reported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Dispositions and Actual Learning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8(1):154-173.

Hoffman, L. H., & T. L. Thomson. (2009). The effect of television viewing on adolescent'civic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1):3-21.

Hoffman, L. H., & D. G. Young. (2011). Satire, punch lines, and the nightly new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8(2):159-168.

Jenkins, H., Puroshotma, R., Clinton, K., Weigel, M., & A. Robison.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Cambrige, MA: MIT Press.

Kenny, Christopher. (1993). The Microenviron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1(2):223-238.

Lin, Hsiu-Fen. (2007). Effects of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on Employee Knowledge Sharing Intention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3(2):135-149.

Maslow, A. H. (1976).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and Row.* New York.

Milbrath, Lester W., &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Morrell, M. E. (2003).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for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Public Opinion Quarterly,* 67(4):589-602.

O'Reilly, T. (2011). Government as a Platform. in Lathrop, D. & L. Ruma(ed), *Open Government: Collaboration,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Practice*, 11-40.

Pollock, P. H. (1983). The Participatory Consequ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 Research Note.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6(3):400-409.

Prior, M. (2007). *Post-Broadcast Democracy: How Media Choice Increases Inequality in Political Involvement and Polarizes Ele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themeyer, R. Karl. (2006). Policymaking in the Age of Internet: Is the Internet Tending to Make Policy Networks Move or Less Inclusiv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259-284.

Ryan, Richard M. & Edward L. Deci.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54-67.

Verba, S. & N. Nie. (1972). *Political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Verba, S., Nie, Norman H., &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Zhang, W., Johnson, T. J., Seltzer, T., & S. L. Bichard. (2011). The revolution will be networked.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8(1):75-92.

접수일(2016년 06월 13일)
수정일(2016년 08월 17일)
게재확정일(2016년 08월 22일)